

강혜은 Hyeun KANG (b.1956-)

1979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개인전 | (서울, 부산, 대구, 상주, 아산 등)

2026 (맥화랑, 부산)

2025 《흘부러진 풍경》(커넥트 현대, 부산)

《Line-Piece》(맥화랑, 부산)

2024 (맥화랑, 부산)

2023 (맥화랑, 부산)

2021 (맥화랑, 부산)

2020 《Line-Piece》(맥화랑, 부산)

2019 (맥화랑, 부산)

2018 (맥화랑, 부산)

2017 (수화랑, 대구)

(맥화랑, 부산)

2016 (수화랑, 대구)

2015 (맥화랑, 부산)

2013 《선을 싣다》(맥화랑, 부산)

(봉성갤러리, 대구)

(수화랑, 대구)

2012 (수화랑, 대구)

(맥화랑, 부산)

2009 (아산갤러리, 아산)

2006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5 (모레아갤러리, 대구)

2004 (한기숙갤러리, 대구)

(라운지갤러리, 대구)

2003 (문화예술회관, 대구)

2002 (대백플라자, 대구)

2000 (문화회관, 상주)

1999 (소헌갤러리, 대구)

| 주요 단체전 및 아트페어 |

2026-2014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2026 아트센터럴 홍콩 - 듀오 프로젝트 (Central Harbourfront, 홍콩)

2025-2024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대만)

2025-2012 Kiaf SEOUL (코엑스, 서울)

2025-2012 10-2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5-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2025-2012 ART BUSAN (백스코, 부산)

2025-2012 BAMA (백스코, 부산)

2025-2020 ONE Art Taipei (타이페이, 대만)

2025-2012 INTERMISSION (맥화랑, 부산)

2023 PAUSE (맥화랑, 부산)

2022-2008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2019-2014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2019-2017 ART FORMOSA (타이페이, 대만)

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홍콩)

2016 Affordable Art Fair Seoul (DDP, 서울)

2016-2015 ART KAOHSIUNG (가오슝, 대만)

2016-2012 SOAF 서울오픈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13 HONG KONG CONTEMPORARY14 (홍콩)

2012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홍콩)

2011 광주국제아트페어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11 KOREAN ART SHOW 2011 (뉴욕, 미국)

2011 International Art Expo (베이징, 중국)

2010 ART FAIR 21 (필름, 독일)

그 외 다수.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기업은행 본사 외 단체/개인 컬렉션 다수

| 전시서문 |

흘부러진 풍경 속 색선(色線)의 향연

실을 직조하여 옷감을 만들어 온 역사는 길다. 그 오래된 역사는 대부분 여성의 역할로 이어져왔다. 일의 성격상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병행하기에 가장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카시아 세인트클레어가 실의 역사에 주목하여 쓴 『총보다 강한 실』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까지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고 손으로 직접

실을 뽑고 베를 앞에 앉아 손톱이 빠지도록 옷감을 짜다. 방직공장이 생기자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주 60시간씩 일을 했다. 실의 역사는 여성의 생활사이자 노동사다.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날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씨실을 서로 교차시키며 고단하고 지루하게 엮어간 직물 속에는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다. 강혜은 작가는 유화물감으로 마치 씨실과 날실이 교차되며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가듯 캔버스 위에 수많은 색선(色線)을 쌓아나간다. 수 백년의 역사 속 여성들이 그려왔듯 강혜은 작가는 물감에서 무수한 실을 자아내며 여자로서, 또한 작가로서 캔버스 위에 삶의 애환을 풀어낸다.

강혜은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재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언뜻 보서는 실인지 물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실처럼 가늘고 긴 색 선들이 층층이 쌓이고 겹쳐져 화면을 가득 채운다. 각기 다른 색의 선들이 중첩되면서 어우러져 시각적으로 폭신하고 보송보송한 촉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작가는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물감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법을 완성하였다.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어가듯, 유화물감을 손아귀 힘만으로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굵고 가는 색 선을 뽑아낸다. 팔레트에서 조합한 색상을 붓으로 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감 덩어리를 손가락의 힘으로 짜내어 선들을 쌓아가며 전체적인 형태와 색감을 조화시킨다. 실처럼 보이는 유화물감의 선들이 겹겹이 겹쳐지면서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을 형성한다. 평면의 캔버스이지만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유화물감의 색 선들이 층을 쌓으며 만들어낸 공간 때문이다.

작가가 이러한 기법에 착안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1956년생 강혜은 작가는 유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부산 서면에서 큰 의상실을 운영하였다. 의상실 내부에는 옷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실과 작은 공장이 함께 있었고, 어머니가 일을 하실 때면 작가는 그 옆에서 실과 천을 가지고 놀곤 했다. 작가에게 실과 천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예순의 나이가 넘은 지금도 작가는 실과 천을 만지고 있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초창기 작품은 실과 천, 물감을 이용한 콜라주(collage) 작업이나 스크래치(scratch), 테이핑(taping), 드리핑(dripping) 등 끊임없는 선(線)작업이 중심이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그녀는 유화물감에서 실을 뽑아내는 듯한 기법을 처음 시도한다. 이때의 작업은 당시 작가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20년간 자연 속에 묻혀 자연의 일부로 생활해 온 작가의 일상이 테마가 되어 캔버스를 구성한다. 몇 년간 지속된 작가만의 독창적인 시도는 어느새 섬세하고 화려한 동양자수를 연상시킬 만큼 물감의 굵기가 명주실처럼 가늘게 쌓아 올리는 경지에 이른다. 이후 물감을 드러내기 위해 색색이 쌓은 선 사이로 물감을 터트리는 작업, 프랑스 지베르니를 여행한 후 이어진 '수련' 연작, 최근에는 좀 더 추상성을 띄는 자연으로 작업이 이어진다.

물감을 건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유화의 특성상 작가는 캔버스를 이젤에 세워서 작업할 수 없다. 작가는 항상 캔버스를 바닥에 눕힌 채 허리를 숙여서 물감을 손으로 흘부리듯 작업한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 과정 자체가 일종의 수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행에 더 가깝다. 호흡을 조절하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작업을 하면 어느새 마음도 숙연해진다. 물감 덩어리를 손에 꼭 쥐고 색 선을 짜다 보면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과 그 시절을 향한 그리움이 응축되어 캔버스 위에 쌓인다. 옛 여인들이 손으로 직접 실을 뽑고 베를 앞에 앉아 옷감을 짜듯, 강혜은 작가는 캔버스 위로 허리를 굽혀 끊임없이 고단하고 지루하게 선을 쌓아 작품을 완성한다.

최근에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 구상의 형태를 무너뜨리며 색(色)과 형(形)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작업을 시도한다. 이전의 작업들이 작품의 완성도 면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다면, 현재의 작업은 '작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여 좀 더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업을 한다. 이번 맥화랑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20여 점의 작업은 지난 겨울내 작업실에서 꼼짝 않고 작업에만 전념한 결과물이다.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 지난 세월의 결과물이라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인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냈던 색(色)과 형(形)으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지고자 함이다. 어른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 멋있게 늙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있던 '고집'과 '아집'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강혜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유로워짐'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2024)

Hyeeun KANG 강혜은 (b.1956-)

1979 Seoul Womens University Fine art major

| Solo Exhibitions | (Seoul, Busan, Daegu, Sangju, Asan etc.)

2026 (Gallery MAC, Busan)
2025 Scattered Landscapes (CONNECT Hyundai, Busan)
Line-Piece (Gallery MAC, Busan)
2024 Gallery MAC, Busan
2023 Gallery MAC, Busan
2021 Gallery MAC, Busan
2020 Line-Piece (Gallery MAC, Busan)
2019 Gallery MAC, Busan
2018 Gallery MAC, Busan
2017 Soo Gallery, Daegu
Gallery MAC, Busan
2016 Soo Gallery, Daegu
2015 Gallery MAC, Busan
2013 Pile up a line, Gallery MAC, Busan
Bong Sung Gallery, Daegu
Soo Gallery, Daegu
2012 Soo Gallery, Daegu
Gallery MAC, Busan
2009 Asan Gallery, Asan
2006 Seoul Insa Art Center
2005 Morea Gallery, Daegu
2004 HanKeeSook Gallery, Daegu
Lounge Gallery, Daegu
2003 Culture Art Center, Daegu
2002 Debec plaza, Daegu
2000 Culture Center, Sangju
1999 Gallery Soheon, Daegu

|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2026-2014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2026 Art Central HK - Duo Project (Central Harbourfront, Hong Kong)
2025-2024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Taiwan)
2025-2012 Kiaf SEOUL (COEX, Seoul)
2025-2012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2025-2024 Korea Galleries Art Fair in Suwon
(SUWON CONVENTION CENTER, Suwon)
2025-2012 ART BUSAN (BEXCO, Busan)
2025-2012 BAMA (Busan Annual Market of Art) (BEXCO, Busan)
2025-2020 ONE Art Taipei (Taipei, Taiwan)
2025-2012 INTERMISSION (Gallery MAC, Busan)
2023 PAUSE (Gallery MAC, Busan)
2022-2008 Diaf (Daegu International Art Fair) (EXCO, Daegu)
2019-2014 Seoul Art Show (COEX, Seoul)
2019-2017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Hong Kong)
2016 Affordable Art Fair Seoul (DDP, Seoul)
2016-2015 ART KAOHSIUNG (Kaohsiung, Taiwan)
2016-2012 SOAF (COEX, Seoul)
2013 HONG KONG CONTEMPORARY14 (Hong Kong)
2012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Hong Kong)
2011 Art Gwangju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2011 KOREAN ART SHOW 2011 (New York, USA)
2011 International Art Expo (Beijing, China)
2010 ART FAIR 21 (Cologne, Germany)
etc.

| Collection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Bank(Korea), IBK BANK(Industrial Bank of Korea), Many personal collectors, etc.

| Summary |

Hyeeun Kang completed the artist's original technique of plucking threads from the paints after 10 years of trials and errors. Just as a silkworm pulls out a thread to make a cocoon, it exerts adequate pressure on the mass of oil paintings to build up thick and thin color lines layer by layer on canvas. As the process of intersecting and mixing the thick and thin lines from the emulsified sense is repeated, new layers are continuously formed on the screen, and the multi-layered structure thus formed is represented by fantastic colors and three-dimensional textures as the lines and layers of colors of various thicknesses blend together.

| Critique |

A Parade of Colorful Lines Spun with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The history of spinning thread and weaving fabric is long. The long history has been shaped mostly by the hands of women, probably

raising a child. According to *The Golden Thread* (2018), written by Kassia St. Clair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reads, millions of women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picked mulberry leaves, fed silkworms, spun thread by hand, and sat in front of the loom to weave the cloth to the point where even their fingernails fell out. When textile factories appeared, women worked 60 hours a week, suffering from dust and noise. The history of threads is the history of women's life and labor. The joys and sorrows of their life are woven into the fabric that is the result of hard and tedious labor of interweaving the warp vertically hung hung down and the weft crossing across it. Hyeeun KANG builds up innumerable lines of color with oil paints on the canvas, just like the warp and weft cross each other to weave a fabric. As women have done in the past hundreds of years, she spins countless threads out of paints, weaving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as a woman and artist into the canvas.

The first question commonly asked by those who first see her work is about materials. At first glance, it is difficult to tell whether it is thread or paint. Thin, long lines of color are stacked layer upon layer and overlap each other to fill the whole canvas. As the lines of different colors overlap and harmonize with each other to make them visually fluffy and fuzzy to the touch. Through 10 years of trial and error, she has finally completed the technique of drawing threads out of paints. As if a silkworm pulls thread to make a cocoon, she applies appropriate pressure to the tubes of paint with her grip only, to pull out thick and thin lines of color. Instead of mixing paints on the palette to make colors, she squeezes the paints by hand, stacks the lines of primary colors to harmonize the overall hue. Lines of oil paints, which look like threads, overlap each other to create layers, forming small spaces between the layers. The canvas is flat, yet the overall three-dimensional effect is due to the spaces created by the layers of colored lines of oil paints.

Hyeeun KANG, who has been immersed in spinning paint so finely and delicately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thread or paint, has become accustomed to freely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the color lines. And now, on the contrary, she tries the method of reveal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oil paints. If the previous work was a detailed process of endeavor to make the finest lines possible, this new attempt shows the boldness of a method that involves throwing lumps of oil paints in the middle of stacking color lines, bursting them, and mixing up coarse and fine threads so that they intersect each other. (See her works of 2015) As she descended from the mountain and moved her studio to the city area in 2014, the themes of her work, which used to be limited to the landscape of 'nature', also diversified. Works at this period include the landscape of the 'city' that reconstructed the memories of her childhood in the city where she was born and raised, *Water Lilies* series produced as a homage to Claude Monet after her trip to Giverny, the setting of the French master's *Water Lilies* series.

Given the nature of oil painting, which requires time for paints to dry, she cannot work with the canvas upright on the easel. She always lays the canvas on a flat surface, bends her waist forward to work as if scattering paints with her hands. She says that this process itself is a kind of training, but it is actually more like an act of penance. As she catches her breath and concentrates totally on her fingertips, her mind becomes calm and solemn. When she holds fast a mass of paint in her hand and spins colored lines, the happy memories of her childhood and the nostalgia for those days are condensed and accumulated on the canvas. Just as the women in the old days pulled the thread by hand and sat in front of the loom to weave the cloth, Kang Hye Eun bends over the canvas for the tiring process of continually stacking the lines to complete a work.

Recently she tries to work more freely from colors and forms, breaking down the representational shapes. If her previous work was a process of focusing on the level of completion, from now on she tries to be livelier and more energetic by focusing on the 'act' of working itself. That is why we can look forward to Kang Hye Eun's next move even more.